

# “상생·혁신으로 시민을 이롭게” 새로운 광산 닷 올랐다

## 박병규 광산구청장 취임...민선 8기 경제·문화 등 청사진 제시 취임식 생략 '찾아가는 구청장실' 1호 결재 등 소통행보 눈길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시민이 원하는 광산, 시민이 이로운 광산을 건설하겠다”며 민선 8기 새로운 광산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경제와 소통을 구청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취임 첫날부터 취임식 대신 현장소통 중심의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박병규 청장은 지난 1일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라는 구청 목표를 내걸고 취임했다. 행사 위주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민선 8기 비전과 정책을 놓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가져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직급, 직군을 나눠 차례로 타운홀 미팅을 가진 박 청장은 격의 없이 다양한 주제로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고, 핵심 정책 공약을 공유했다.

박 청장은 소통으로 친근한 행정 ▲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 ▲문화관광 꽃피는 도시 등 4대 구청 방침을 바탕으로, 코로나 팬데믹,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과 도약의 전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로 한층 더 빨라진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가 관심을 모았다.

박 청장이 최초로 설계하고 제안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광산에서 이어가겠다는 것. 주거, 보육, 의료 등 사회임금 지원체계를 구축해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비축은 낮추는 혁신적 지역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게 골자다.

박 청장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어지면 우리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좋은 일자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화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더 나은 일자리’로 대한민국 경제개혁의 길을 제시했듯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를 통해 광산을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송정역이 광주의 관문을 넘어 지역 최고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 앞에 광장을 만들고, 주변 상권을 ‘송정역세권 1시간 맛거리’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청년 창업 샌드박스 운영’ 등 다양한 청년정책도 제시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송산근린공원부터 황룡강, 어등산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한 ‘생태·문화·예술 탐방로 30리길’ 조성을 강조했다. 걷기 좋고, 걷고 싶은 길,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쉬다 가는 ‘산소 스페이스’를 제공해 광주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광산을 찾아오도록 하겠다는 것.

주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통한 행정혁신도 예고했다. 특히 박병규 구청장은 “시민과의 소통, 현장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찾아가는 경제 구청장실’을 민선 8기 1호로 결재했다.

실제 박 구청장은 첫날 다양한 주요 현장을 누비는 광복 행보로 현장소통의 의지를 드러냈다. 가장 먼저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는 박 청장은 이후 신가동 재개발 현장, 월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인 고려인마을,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구청장은 1호 결재인 ‘찾아가는 경제 구청장실’을 조속히 가동하는 한편, ‘전문가 중심의 정책 기획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하는 등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촘촘한 돌봄, 복지 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을복지



1일 취임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취임식을 대신해 공직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을 확대하고, 100세 시대 커뮤니티 헬스케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병규 구청장은 “경제, 교통·물류, 생태 등 다양한 자원을 갖춘 광산구는 코로나 팬데믹,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힘을 가지고 있다”며 “광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

워 지역발전의 새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많이 시민을 만나고 듣는 시간을 갖겠다”며 “경제와 소통을 상생과 혁신으로 이어, 새로운 광산, 시민이 이로운 광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장·윤혜영 부의장 선출

광산구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부의장으로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동,운남동)이 각각 선출됐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5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치렀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과 같은 당 김은정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등록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의 숫적 열세에 부딪쳐 4

표를 얻는데 그쳤다.

제9대 광산구의회는 민주당 소속 14명, 진보당 소속 3명, 정의당 소속 1명 등 총 18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민주당측 의장 후보를 놓고 김태완 의원과 김명수 의원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뺨기’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촌극까지 연출되면서, 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란표 등이 예상됐으나 이번은 없었다.

김태완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김태완 의장      윤혜영 부의장

“상생과 협치를 통해 광산 발전을 이끌어 내는 일 잘하는 의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사랑으로 차려낸 푸짐한 한 상”

수완동 봉사단 ‘민들레’, 경로당 어르신 점심 봉사

한동안 조용히만 하던 경로당이 북적인다. 맛있는 냄새와 함께 색색의 반찬이 버무러지고 푸짐한 한 상이 차려진다. 수완동 봉사단체 ‘민들레’가 경로당 어르신 점심봉사를 개시했다.

마을봉사단체 ‘민들레’는 광산구가 주관하는 ‘2022 오손도손 마을살이 주민공모’에 선정돼 ‘지혜를 버무린 반찬, 사랑을 차린 밥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반찬을 만들고, 정성과 사랑을 담은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수완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와 함께 광산구 아름마을 휴먼시아 2단지 경로당에서 첫 점심 봉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매월 관내 경로당에서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해 경로당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반찬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

광주 광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2년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기존 중위소득 46%(4인 가구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 사업이다.

광산구는 지난 3월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협약에 따라 광산구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전담 기관인 LH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수선유지급여 사업 예산은 총 7억원으로 주택 노후도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114가구(경보수 74, 중보수 25, 대보수 15)를 선정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경보수 11세대와 중보수 8세대가 집수리 진행 중이며 대보수 수리는 이달 중 8세대를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 공간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역 스포츠 동호인들의 축제인 2022년 광산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개막했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2회 광산구청장기 생활체육 풋살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9일 배구, 31일 배드민턴 생활체육대회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광산구는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종목별 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오는 8월에는 골프 대회와 탁구, 볼링 등 무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대회를 준비 중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화지점